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다음 주일부터 교회력이 시작되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 연속기도회는 12월 16일(월)~23일(월)까지입니다.
이번 대강절에는 모든 지체가 연속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사랑방 방모임은 12월 6일(금)이 종강입니다. 후반기 방별 공동체생활은 피드백을 중심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멩쟁이학교 종강발표회가 11월 30일(토) 저녁 7시에 있습니다.
- 지난 주 공동체 김장을 잘 마쳤습니다. 애쓰시고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한호남 · 정승희 집사 가정 (감사)
최요한 목사 · 황성자 사모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한호남 집사 (감사)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47 호
2024년 11월 24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아따, 거시기 해야제!

멋쟁이 학생 한 명이 밭에서 배추에 칼을 댁니다. 쓱쓱쓱 밭동이 잘린 배추를 옆에 뉘여 놓고 다음 배추로 넘어가니, 다른 학생이 와서 잘린 배추를 한 손으로 집어듭니다. 이미 그 학생은 다른 한 손에 배추를 두 개나 껴안고 있습니다. 적당히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배추를 다듬고 있는 하우스로 휘적휘적 걸어갑니다. 하우스 안은 약 10명의 사람들이 배추를 옮기고, 썰고, 다라이에 쌓고, 허리를 피고 있습니다.

하우스 바깥쪽에는 남학생들이 무를 열심히 씻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아려오도록 수세미로 박박 문지릅니다. 여기도 만만찮게 시끄럽습니다. 남학생들의 대화 주제는 이따끔씩 축구라는 블랙홀로 빠집니다. 배추를 나르던 학생들도 구경하듯 옆에서 슬쩍 끼어들기도 합니다. 이 대화의 결말은 대개 비슷합니다. “이따가 (시간이 되면) 축구 하자.”가 그것입니다. 그 결론까지 도달하고 나면 빨리 작업을 끝내기 위해 작업 속도를 높입니다. 대단한 축구 사랑입니다.

배추를 다 옮기고 난 다음에는 밭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비닐을 뜯고 있자니 사무실 앞에서는 쪽파를 열심히 까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의 손톱에 흙이 끼는 만큼, 때를 벗겨낸 것 같은 쪽파들이 허영게 쌓여갑니다. 즐거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걸 보면, 김장보단 재밌는 이야기를 하러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어느덧 배추를 절이고 있습니다. 20kg짜리 소금 마대를 한창 털고 있는데 어느덧 간식이 옵니다. 잠깐 고무장갑을 벗고 달달함을 즐깁니다. 숨을 돌리고 보니 생각보다 빠르게 끝날 것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축구를 갈망하던 학생들의 얼굴이 기대감으로 화색이 돕니다. 결국 날이 어둡해질때쯤 쪽파 까기와 축구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더 많은 저녁밥이 뱃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후에는 학생 중에선 고등학생만이 작업에 참여합니다. 도마와 식칼을 있는 대로 꺼내어 무를 갈거나 깎뚝 썰고 대파와 쪽파도 다듬으니 눈두덩이에 매운 눈물이 그렇그렇 맺힙니다. 함께 하시는 어른

들의 지도를 받다보니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야식을 배부르게 먹은 남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공장 하우스로 가서 절인 배추들을 전부 뒤집어 놓습니다. 잠을 자러 돌아가는 길에 노래를 부르며 걷던 학생들이, 이 별빛 달빛이 찬란한 새벽기운에 마음이 들뜨습니다.

새벽 4시에는 절인 배추를 씻어야 합니다. 정재훈 목사님을 비롯해 모두가 각각 나름대로 몸과 마음에 중무장을 하고 모였습니다. “아따, 거시기 해야제!” 영화 <황산벌>을 봤던 누군가가 호기롭게 외쳐서 웃음을 자아냅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배추를 씻고 쌓다보니 7개 다라이 분량을 어느 샌가 해치웠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서 아침식사를 거행합니다. 이때가 바로 남학생들이 오랫동안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비밀상적인 아침을 먹고 나오자 하늘이 밝아져 있습니다. 이제는 물기 빠진 배추들을 부엌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제 막 떠오르는 햇살을 받으며, 리어카를 몰아갑니다. 부엌에는 식사를 차려주신 분들과 설거지를 해주시는 분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안을 비집고 들어가 배추를 잔뜩 쌓아놓습니다. 잠시 뒤에 여학생들이 장로님께서 버무려놓으신 양념으로 김치를 본격적으로 담급니다. 이 학생들은 막 만들어진 완성품을 가장 먼저 먹어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치통을 꽉 채워 냉장고까지 넣어두면 일은 일단락 됩니다. 이즈음에 남학생들은 모자란 잠을 보충하러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고, 여학생들은 베다니하늘주방팀과 함께 빵과 음료를 즐깁니다. 그리고 저학년들은 그런 학생들을 부러워하며 언젠가 자신도 저 안에 끼어들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번 김장이라고 해서 유별나진 않았습니니다만, 매년 같은 과정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합니다. 부족함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체감하게 됩니다. 남녀노소가 한데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또한 느낍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든 것이 더욱 감격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신비 일까요? 앞으로도 우리 안에서 믿음의 보이지 않는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기대해보며, 아쌀하게 거시기 해야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 말씀

“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

< 누가복음 19장 10b절 말씀 >

< 수요일기도회 >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주께 가까이, 내가 주인 삼은

기도 :

성경 : 에스겔 24장

제목 :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1. 내용: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What)

<문단구분>

1~7절 <암몬에 대한 심판 예언>

8~11절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

12~14절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

15~17절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

2. 의미: 하나님은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Why)

1)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2) 적대적 관계에서도 선을 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

3) 각 나라의 우상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아무 쓸데없다.

3. 적용: 성도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자. (How)

1) 온 세상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자.

2)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3) 성도는 세상 가운데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쁨

안녕하세요. 늘푸른사랑방 김진솔입니다. 이번 글을 적기에 앞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멋쟁이학교 5학년 생활을 끝으로 학교를 떠나게 되면서 몸과 마음도 사랑방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되어 어느새 교회를 찾지 않는 생활이 당연시되고 익숙해졌었습니다.

다시 교회를 찾아가기에 여러 고민과 걱정들도 많았지만 용기를 내어 찾아간 사랑방교회는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너무 반갑게 맞아주신 덕분에 감사하게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사랑방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지체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늘푸른사랑방은 올해 상반기에 신약 통독을 목표로 성경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꽤나 오랜만에 말씀을 접한 탓에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성경을 하루하루 읽어가며 점차 변화하는 일상들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신약 통독 일정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사랑방 바이블데이 성경퀴즈 대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퀴즈 범위 상당 부분이 신약 통독 범위와 겹치게 되어 비교적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퀴즈대회 날을 맞이하여 저희 늘푸른사랑방은 유례없는 퀴즈 실력을 뽐내며 마지막까지 열렬히 퀴즈대회에 열을 불태웠습니다. 퀴즈대회를 준비하고 또 열심히 참여하며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성경을 가까이하고 두루두루 말씀을 즐기는 모습들을 함께하며 저 역시 사랑방공동체에 몸담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사랑방공동체가 제가 그랬었던 것처럼 더 많은 지체들이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공동체임을 더욱 감사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늘푸른사랑방 김진솔 청년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108 : 3-5
64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6 : 6-7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503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누가복음 19 : 1-10 설교자
성가대 찬양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62) 미리내사랑방
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십시오” 정태일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510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38(1)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조장희 이재신 / 봉헌위원 : 임상희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를 먼저 부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에 저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 몸의 지체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십시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고,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1-2>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3-4> 예수께서 먼저 삭개오를 부르셨고, 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5-6> 그리고 말씀하셨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10>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 삭개오는 부자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었으나, 떳떳하지 못하여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은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먼저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그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십시오. 도시화된 산업문명 사회에는 사회관계망에서 고립되고 은둔된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으로 신앙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잘 지키고 가꾸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강춘자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지난주에 꾸러기들은 깍두기 담그기를 했습니다. 하루 전 날 밭에서 무와 쪽파를 뽑아두고 다음 날 풀 쪄기를 시작으로 열심히 깍두기를 만들었습니다. 꾸러기들도 과일칼로 무를 조심조심 썰고 파도 총총 썰었습니다. 선생님들과 꾸러기들의 힘을 합해 깍둑썰기 한 무가 큰 양푼 가득 찼고 그 다음 소금과 설탕으로 무를 절일 동안 양념 소개와 맛보기를 했습니다. 절이기 전의 무를 맛보고 절여진 무도 먹어 봅니다. 새우젓을 한 마리씩 먹어보고 멸치액젓은 손가락에 콕 찍어서 맛을 봅니다. 생강청의 달고도 매운 맛도 보고 쌀가루로 쑨 풀도 맛봅니다. 무 고추가루 소금 마늘 새우젓 멸치액젓 생강청까지, 짜고 맵고 달고 고소하고 시원한 각각의 맛이 한데 섞일 차례입니다. 절여진 무에 양념을 넣고 고무장갑을 낀 꾸러기들이 한 명씩 뒤섞기를 해 보았습니다. 드디어 깍두기 완성! 빨갛게 변한 무를 한 개씩 입에 넣어주었더니 맛있다고 평소에 매운 것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네다섯 개 씩 자꾸자꾸 먹었습니다. 깍두기 담그기 대성공입니다!

금요일 점심식사 시간에 나온 배추겉절이를 먹고는, 평소에 매운 음식은 힘들어한 이든이가 “왜 우리는 배추김치는 안 담가요?”라고 물어서 선생님들의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매운 겉절이를 꾸러기들 모두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신통방통했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11월 19(월)~21(목)까지 2박 3일 동안 고양(일산)에 다녀왔습니다. 첫째날 MBC 드림센타에서 PD·아나운서·방송작가·카메라맨 등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실제로 날씨 아나운서가 되어 보기도 했습니다. 일일 드라마 세트장에서 끼리끼리 연기도하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날 3성급(?) 숙소에서 도란도란 얘기도하고 탁구도 치고, 체육

배움과 가르침

짜축구·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 다양한 놀이를 하였습니다. 저녁엔 근처 지인 교회에 가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엔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체험 전시 공간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호수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 놀기도 하고 배달 시킨 맛난 간식을 먹으며 행복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호수공원에서 신발 던지기를 하다가 이**의 신발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울고 있었는데 정**가 나무 위에 올라가 흔들지만 안되었고... 공원관리자께서 신발을 내려준 것을 보고 아이들은 고맙다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

이번 여행은 날씨가 좀 쌀쌀했지만 때에 맞춰 따듯함을 주셔서 모든 일정이 순탄하였습니다. 여러 곳을 다녔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감기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얼른 회복하기를 바라고 얼마 남지 않은 2학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내 보아요.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서리가 내려왔고 노을이 빠르게 다가옵니다. 멋쟁이들은 어떤 때보다도 바쁜 주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분발했던 것은 학기말 자율평가서 작성입니다. 학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정리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에, 많은 멋쟁이들이 책상 앞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거기에 겹쳐서 공동체에서는 김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도 멋쟁이들의 안에서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6학년이 졸업여행을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이국의 햇빛에 타서 돌아온 모습들이 훌가분해 보입니다. 안전하고 좋은 여행을 위해 기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종강주간으로, 선생님과 함께 학기를 정리하는 학기말 면담을 이어갑니다. 멋쟁이들이 자신의 성장을 깨닫고, 피드백을 통해 더욱 성숙해져 가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김장

매년 11월 사랑방 공동체에선 김장을 한다. 이번 년도에도 어김 없이 김장을 하였다. 김장을 하며 느낀 것인데 김장하는 것은 한 해 동안 먹을 김치를 공동체 분들과 다 같이 준비하기 때문에 공동체 분들과 학생들이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장을 했었다. 목요일엔 무와 배추를 뽑고, 배추를 절이고, 밤엔 남자 고학년들이 그 배추를 한 번 뒤집고 새벽에는 그 절인 배추들을 다 씻는 일을 했다. 특히 이 새벽에 절인 배추를 씻어내는 것이 내 생각엔 김장에서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다. 새벽 4시 일어나 잘 절여 놓았던 배추들을 물에 씻기는 작업을 한다. 배추를 씻는 방법은 이어진선생님께서 잘 표현해 주신 표현법이 있는데 마치 사람을 물고문하듯이 배추에 심을 잡고 물에 두세 번 정도 강하게 담갔다가 빼면 된다. 그렇게 노동요를 들으며 이쯤 되면 거의 다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면 아직 반은 더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도 아주아주 다행히 이 작업에도 끝은 있었고 작업 이후에는 선생님들과 국밥을 먹었는데 국밥 또한 김치 순대국밥을 먹었다. 아침을 먹으며 뉴스를 보았는데 김장을 한 당일이 김치의 날 이라는 사실도 흥미로웠다.

국밥을 먹은 후 학교에 돌아와 씻어놓았던 배추를 부엌으로 옮겨 주는 작업을 했다. 이 작업이 내가 맡은 마지막 작업이었다. 아까 배추를 절일 땐 나집사님과 정재훈목사님께서 도와주셨지만 씻은 배추들을 부엌으로 옮기는 작업은 나와 예흠이형, 재언이형, 이어진선생님 이렇게 4명이 해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그래도 이 일만 끝내면 다시 잘 수 있다는 그 희망 하나만을 바라보며 모든 힘을 다해 배추들을 날랐다. 그래서 생각보다 비교적 빠르게 끝낼 수 있었다.

이번 김장을 하며 공동체에서 하는 김장은 한해의 농사를 마무리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무리의 과정까지 끝까지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끝까지 다함께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푸른꿈사랑방 이홍인 학생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찬 송 : 364장, 559장, 310장
성 경 : 디모데전서 2장 1-6절
말 씬 : 모두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전쟁의 축소 위해>
미국의 허가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러시아는 핵무기 발사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전쟁의 축소와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따باط 공동체와 여교역자 안식관을 위해>
1) 섬김 속에서 많은 은혜가 꽃피길
2)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길.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1) 어린이학교 여행, 멋쟁이학교 여행을 위해.
2) 환절기 건강을 위해
3) 공동체 김장을 잘 치루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생활공동체 소식 >

드디어 애지중지하던 배추를 수확하여 김장을 하였습니다. 지난여름 무더위로 인해 배추농사가 잘 되지 않아 여러 방법으로 배추를 살려내서 전년보다 더 많은 배추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공을 들인 만큼 배추 맛이 아주 좋고 벌레 먹거나 누런 잎도 적었습니다. 무우도 맛이 아주 일품으로 시중에 파는 무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달고 시원합니다.

생활공동체 식구들과 멋쟁이들이 함께 이틀에 걸쳐 만든 김치와 수육을 함께 먹으니 산해진미가 따로 없습니다. 겨울 양식을 잘 준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쁜 김장이었습니다.

<장영미 전도사>